

노출 사진 공개 즐기는 여성 시의원



▲ 칸델라 코레아 시의원. 사진=인스타그램(candelacorreak)

아르헨티나 지방도시 살타의 시의회가 칸델라 코레아 시의원의 신체 노출 사진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20만에 달하는 칸델라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속옷 차림으로 욕실 거울을 보며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에 한 동료의원은 “시의회는 품위와 직결된 문제라고 본다.” 면서 “노출이 심한 사진을 보면서 시민들이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 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칸델라는 “일상의 삶을 이어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정치에 입문한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 이라고 주장했다.

피트니스 강사 출신인 칸델라는 2018년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SNS를 이용한 소통에 적극적이였다. 특히 노출이 심한 사진을 많이 올렸다. 시의원이 된 후에는 정치메시지와 노출이 심한 사진을 같이 올렸다.

칸델라는 동료 의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가 강요하는 선입관을 깰 필요가 있다.” 면서 “시의정 활동에 열심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시비를 걸 일이 아니라고 본다.” 고 말했다.

칸델라는 올해 10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재선에 도전할 계획이다.

‘버려진 여성 속옷’ 때문에 목숨 잃은 돌고래

여성의 속옷으로 보이는 의류 때문에 목숨을 잃은 멸종위기 돌고래의 사체가 발견됐다.

지난 16일 브라질 이타포아 해안에서 발견된 길이 약 1.4m 몸무게 32.2kg의 어린 기아나돌고래는 발견 당시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수의사들이 사인을 밝히기 위해 돌고래의 사체를 관찰하던 중 지느러미를 꼬꽂고 있는 여성의 속옷 또는 비키니 하의를 발견했다.

문제의 속옷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돌고래의 지느러미를 감싸며 압박해 해염을 치거나 먹이를 사냥할 때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속옷으로 인해 난 상처로 상처로 세균이 침투해 지느러미 일부가 손상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했다.

여기에 폐렴 및 귀 일부와 폐에 상당한 기생충이 존재했고, 이 역시 제대로 해염치거나 먹잇감을 먹지 못하면서 나타난 만성 쇠약 증상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면과 실크 같은 천연 직물은 분해되는데 수개월 정도가 걸리는 반면,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 직물을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이



▲ 숨을 거둔 채 발견된 돌고래. 사진=haber3.com

러한 직물 쓰레기는 분해되기 전 해 해양 생물이 삼키거나 몸에 엉키면서 극단적인 결과를 유발한다.

직물 쓰레기에 참변을 당한 기아나돌고래는 참돌고래과에 속한다. 남아메리카 북부와 동부, 중앙아메리카 동부 해안 등지에서 주로 서식하며, 버려진 그물에 얽혀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아지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신 남친, 양다리 걸쳤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보석가게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이 반지를 사러 온 고객의 ‘비밀’ 을 폭로하는 영상을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최근 자신이 일하는 가게로 제이크라는 이름의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고 싶다며 추천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남성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반지를 구입하려고 했다.

영상을 올린 여성은 제이크에게 “반지 두 개 모두 영수증이 필요하냐?” 고 묻자, 그는 하나는 여자친구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자친구 몰래 만나는 또 다른 여성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성 직원은 반지를 포장하기 전 점검하겠다고



▲ 남성 고객의 ‘양다리’를 고발한 영상. 사진=Tik Tok(ferreiroche) 캡처

반지를 가지고 매장 안쪽으로 들어간 뒤 영상을 촬영했다. 그 후 틱톡(Tik Tok)에 올린 영상에서 “만약 당신의 남자친구 이름이 제이크이고, 몬트리올에 살고 있다면 받은 반지를 던져버려라.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 및 내연관계에 있는 또 다른 여자를 위해 두 개의 반지를 샀다.” 라고 폭로하며 남성이 구매한 반지 두 개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가 구매한 반지는 각각 40~50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대체로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영상 속 여성 직원이 고객의 정보를 공개한 것과 다를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